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MARCH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7



### 2026년 첫 번째 마스터 클래스

지난 2월 12일, 골든클럽의 금년 첫 마스터 클래스가 Ridgefield Park의 Hilton Garden Inn에서 열렸습니다. 총 23명의 회원들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정홍균(Henry) 변호사의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강의를 듣고 함께 점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변호사의 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헌법은 기득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민으로 시작된 미국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250년 동안 발전해 온 정치·사법 시스템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원래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실용적인 법률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마도 골든클럽 회원들의 높은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법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으로 강의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강의를 깊이 있게 즐기셨고, 특히 오후 추위 속에서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나누는 반가움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은 지난해까지 Zoom을 통해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사와 참석자 간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올해부터는 대면 강의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듣고,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데에도 훨씬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교류하는 시간 자체가 큰 가치라는 점에서 대면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골든클럽은 특별한 행사가 없는 달에 연 6회 정도의 Master Class를 열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동문 강사를 초빙했지만, 올해부터는 외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초청하려 합니다. 강의 주제는 회원 여러분께 의미 있고 흥미로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니, 많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Master Class는 학교 강의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26 골든클럽 시즌 오픈 골프 대회: "필드 위에서 그리는 황금빛 우정"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봄기운이 차오르는 4월, 우리 골든클럽의 활기찬 에너지를 깨울 2026 시즌 오픈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Sunset Valley Golf Course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곳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오며 갈고닦은 솜씨를 뽐낼 분들에게는 화려한 데뷔 무대가, 긴 동면 끝에 굳어진 골프 근육을 깨우실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코어보다 더 소중한 \*\*'함께하는 가치'\*\*입니다. 거친 필드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골든라이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초록빛 필드가 부르는 소리에 화답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 행사 안내

일시: 2026년 4월 23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 \$120

등록: 김병순 (703)407-4928 / 카톡방 회신

존경하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땅 밑에서는 이미 봄의 꽃순이 생명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든클럽도 그 강인한 생명력을 닮아, 2026년의 첫 문을 여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조했던 안부를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회비: 1인당 \$120

### [Masterclass 제2강] 다시 대학생이 되어 떠나는 '미국 역사 인문학 여행'

#### 이길주 교수 초청: 이민 1세대가 꼭 알아야 할 우리가 몰랐던 미국 이야기

지난 2월, 법률 세미나를 통해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 오는 4월에는 우리가 받을 담고 사는 이 땅, '미국의 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골든클럽이 정성껏 준비한 [골든 라이프 마스터클래스] 제2탄의 주인공은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워트로 정평이 난 버건 커뮤니티 칼리지(Bergen Community College)의 이길주 교수님입니다.

1. 유튜브가 열광한 역사학자, 이길주 교수를 만나다

이길주 교수님은 유튜브 시리즈 <서부를 찾아서> 등을 통해 이민 1세대인 우리조차 미처 몰랐던 미국의 숨겨진 역사와 철학을 통찰력 있게 풀어내며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수자로, 혹은 주역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역사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며,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폼격 있는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 "Back to College!" - 캠퍼스에서 느끼는 배움의 설렘

이번 강의를 특별히 Paramus, NJ에 위치한 Bergen Community

College의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호텔 연회장이 아닌,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대학교 캠퍼스 교정에서 오랜만에 '대학생'이 된 마음으로 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앞에 선 교수님의 열강과 학구열에 불타는 동료들의 눈빛이 어우러져, 수십 년 전의 그 설레는 학창 시절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3. 왜 이 강의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새로운 시각: 30~40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도 몰랐던 미국의 민낯과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트와 감동: 지루한 역사가 아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연이 펼쳐집니다.

지적 유대감: 배움을 통해 회원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강연 안내]

일시: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Bergen Community College, Paramus, NJ (상세 강의실 추후 공지)

강사: 이길주 교수 (Bergen Community College 역사학 교수)

배움은 늙지 않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4월의 화창한 봄날, 파라무스의 교정에서 여러분의 지성을 깨우는 이 황홀한 클래스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 라이프, 아는 만큼 더 풍요로워집니다."



## [마스터클래스 리포트]

# 법(法), 보이지 않는 나의 가장 든든한 ‘백’

제1회 골든 라이프 마스터클래스 [법률편] 현장 요약

지난 2월 12일, 골든클럽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 라이프 마스터클래스'의 첫 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은 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패'로 바꾸어 보는 통찰력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 1. 법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당당한 실체'입니다

정변호사는 법을 아이폰(iPhone)에 비유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은 낚새도 나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법이라는 큰 ‘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행위를 사회적 합의인 법적 언어로 번역(Translation)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역사’와 같다는 설명은 회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 2. 미국 헌법의 뿌리: 마그나 카르타에서 사회계약설까지

미국 헌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부터 시작된 인권 투쟁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적법 절차(Due Process):** 이는 정부가 개인에게 진 '빛'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고지하고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 원칙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서로를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독선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사회계약설:** 우리가 가진 천부적 권리의 일부를 정부에 이양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겠다는 이 계약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첫걸음입니다.

### 3. 실생활 법률 상식: 뉴욕과 뉴저지의 차이

뉴욕과 뉴저지는 가깝지만 법 집행은 엄격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수표(Check) 부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뉴욕에서는 민사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JFK 공항 입국

장처럼 '미국 땅'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간과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 등 시니어들이 여행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 4. 현대의 도전과 '시민의 무지' 경계

강연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제기되는 이민법, 출생 시민권 제안,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법적 쟁점들을 언급하며, 미국 사회가 끊임없이 법을 통해 단련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 대법관 데이비드 수터(David Souter)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이 망한다면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시민들의 무지(Civic Ignorance)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을 아는 것이 곧 나의 품격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 5.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 대처법

마지막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은행(Chase 등)의 보안 부서를 사칭하여 전화가 올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묻고 이메일로 공식 서류를 요청하는 등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정보를 너에게 줄 이유가 있느냐”라고 되묻는 당당함이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

[마치며] 법은 행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골든클럽 회원들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법이라는 든든한 백을 믿고 더욱 당당하게 '골든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골든클럽 회원들의 소감: "막연했던 법이 내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마스터클래스도 정말 기대됩니다!"

# 어머님의 기도와 은인들의 손길이 빛은 ‘골든 라이프’

■ 글: 박희병 (치대 63)

## 1. 평양의 기억: 역사의 소용돌이 속 중심

나는 1943년 평양에서 아버지 박동식 님과 어머니 이순복 님의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습니다. 공산 치하의 삼엄한 시절이었지만, 어린 내게 평양은 여전히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대동강 능라도에서의 어죽 잔치, 뽕뽕 얼어붙은 강 위에서의 썰매 타기와 아이스케이팅, 그리고 모란봉 중턱 영화관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당시 북한의 2인자 최용건에게 빼앗겼고, 숙부님 댁은 소련군 사령관 스티코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평양 근교 강서군으로 피난을 갔던 아버님은 대지주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해 신정중학교를 설립하신 아버님의 공로와 어머니가 베푸신 덕을 기억한 주민들의 간곡한 청원으로, 다행히 사형 대신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이 이념보다 강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2. 김구 선생과 장기려 박사, 그리고 기적 같은 생존

평양 시절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집 2층에서 구경하다 전차길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양 의대 병원에서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당시 저를 치료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일성의 둘째 아들도 집에서 떨어져 옆 병실에 입원했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장 박사님의 손길로 살아난 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 3. 피난길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전쟁이 터지고 B-29 폭격기의 불바다를 뒤로한 채 부산과 진해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개구쟁이로 지내던 피난 시절을 지나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예체능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서울 약대에 다니던 누님과 의대에 다니던 누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은 배드민턴 선수로 활약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던 제게, 대구에서 섬유업을 하시던 박동익 장로님(당시 장로님은 저희 북한 집의 집사셨으나 남하 후 성공하셨습니다)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인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 4. 미국 이민과 개업, 그리고 빛을 갚는 마음

공군 군의관 시절 결혼을 하고, 고려병원 근무를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1977년 개업의로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 저의 사정을 아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본받아, 저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생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 5. 60년 만에 모인 삼남매의 황금기

2013년, 70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치과의사로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현재 저는 1960년대에 먼저 이민 온 두 누님과 함께 이곳 뉴욕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의 어느 이웃에서 살 것 같았던 우리 삼남매가 60년 이민 생활 끝에 한자리에 모여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뉴욕과 보스턴에서 훌륭하게 자라준 두 딸과 주변의 좋은 선후배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한 ‘골든 라이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삶의 여정을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 제일 윗줄  
오른 쪽 첫번째가 박  
희병 선배 이고 가운  
데 가운데 안경쓰신  
분이 약대 누님

[골든 라이프 마스터클래스 특집] 미국 정부 5년 주기 식생활 지침 발표:

## 백세 건강, '진짜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찬란한 노년을 준비하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가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수십 년간의 상식을 뒤엎는 과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시니어들의 식탁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레터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실생활 적용법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 1.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초가공 식품과의 전쟁, 진짜 음식으로의 귀환"

이번 2025-2030 지침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진짜 음식(Real Food)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칼로리'나 '지방 함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얼마나 가공되었는가"**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 소시지, 설탕이 가득한 음료 같은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신 원재료의 형태가 살아있는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위주로 식단을 재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 2. 시니어를 위한 대격변: "단백질은 늘리고, 저지방 강박에서 벗어나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단백질 권장량의 대폭 상향입니다. 기존 권장량보다 높은 체중 1kg당 1.2~1.6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보존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전지방 유제품(Full-fat dairy)"**과 **"자연 유래 지방"**에 대해 관대해졌습니다. 무조건 저지방(Low-fat) 제품만 찾기보다는, 첨가당이 없는 요거트나 치즈, 올리브유, 아보카도, 심지어 적절한 양의 버터와 계란 노른자도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뉴욕/뉴저지 시니어들이 더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 3. 뉴욕/뉴저지 실생활 적용: 우리 동네에서 실천하는 건강법 첫째, 마트 장바구니부터 바꾸세요. 뉴저지의 웨그먼스(Wegmans)

나 홀푸드(Whole Foods), 한인 마트인 H-마트 등을 방문할 때 이제는 영양성분표의 칼로리보다 **"원재료명(Ingredients)"**을 먼저 확인하세요. 성분표가 복잡하고 읽기 어려운 화학 용어가 많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재료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담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뉴욕의 '파머스 마켓'을 보물창고로 활용하세요.** 가이드라인은 제철 음식을 강조합니다. 뉴욕 인근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유통 과정이 짧아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파머스 마켓에서 색이 진한 케일, 비트, 베리류를 구입해 보세요. 항산화 성분이 당신의 세포를 젊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셋째, '한 끼 단백질 30g'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매끼 식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등)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아침 식사로 토스트만 드셨다면, 이제는 삶은 달걀 두 개나 요거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뉴저지의 신선한 수산물 코너에서 연어나 고등어를 구입해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넷째, 수분과 비타민 B12, 그리고 소셜 다이닝.**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물론, 흡수력이 떨어지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 섭취를 위해 강화 식품이나 영양제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무엇보다 이번 지침은 **"함께 식사하기"**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골든클럽 동료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훌륭한 보약입니다.



[마치며] 당신의 골든 라이프, 식탁 위에서 완성됩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침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것입니다. 복잡한 영양학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접시 위에 '가짜'가 아닌 '진짜' 음식을 올리는 정성입니다. 이번 주부터 골든클럽 마스터클래스에서 제안하는 식단 가이드를 따라, 더 활기차고 당당한 뉴욕의 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레터 편집팀 드림] 이 기사는 2026년 1월 발표된 USDA/HHS 식생활 가이드라인 최신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Patagonia 여행기

■ 홍종만 (공대64)

## 1. 여정의 서막: 지구 반대편, '바람의 땅'으로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나머지 과제, '지구의 끝' 파타고니아(Patagonia)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허드슨 산악회 주관으로 우리 부부를 포함한 6명의 원정 대원이 함께한 이번 여정은, 힘들고 무리한 백 패킹 대신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반영하여 간이 숙소와 편의시설을 적절히 이용하는 'Hut-to-hut'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기착지인 칠레 산티아고를 거쳐 푸에르토나타레스(Puerto Natales)에 도착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파타고니아의 상징 '아사도(Asado)'였습니다. 거대한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불가에 세워 굽는 이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이었으며, 곁들인 말베크(Malbec) 와인은 안데스의 거친 풍토가 빚어낸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본래 프랑스 산이었으나 안데스의 고산지대에서 세계적인 품질로 재탄생한 말베크는 이제 파타고니아 여행자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Ram Asado

## 2. 토레스 델 파이네: 야생의 숨결과 시네마스코프의 향연

칠레의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은 비와 바람, 그리고 구름이 빚어내는 변화무쌍한 드라마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름 속의 삼봉: 웰컴 센터에서 6km를 올라 숲속에 자리 잡은 칠레노(Chileno) 캠프장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사다리로 올라가는



Chileno Campsite

텐트 시설은 떨어질까봐 조심했지만 안전하게 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배낭을 벗어놓고 삼봉(Base Torres)으로 향했으나, 우뚝 솟은 화강암 봉우리들은 수줍은 듯 구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



Morador Base Torres

다. 3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깨끗한 삼봉은 보지 못했지만, 구름 사이로 비치는 그 위용만이라도 사진에 담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W-셔킷의 감동:** 이튿날 프란세스(Frances) 캠프장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과 환희가 교차했습니다. 한여름임에도 만년설 덮인 봉우리들이 우리를 불렀고, 중간 캠프장에서 땀을 식히며 마신 맥주 한 잔은 꿀맛 같았습니다. 특히 미라도르 스코츠버그(Mirador Lago Skottsberg)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며 바라본 풍경은 현실 너머의 것이었습니다. 트레킹을 끝내며 선착장에서 탄 Ferry boat는 사흘간 땀흘리며 45km를 걸어온 우리에게 '시네마스코프'급 영상을 선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 3. 로스 글라시아레스: 시간이 멈춘 푸른 얼음의 성벽



Morador Lago Skottsberg

칠레를 뒤로하고 버스로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심장, 엘 칼라파테(El Calafate)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로스 글라시아레스(Los Glaciares) 국립공원의 관문입니다.

**빙하의 포효:** 서울 면적의 40%에 달하는 거대한 페리토 모레노(Perito Moreno) 빙하 앞에 섰습니다. 수면 위로 70m 높이의 얼음벽이 늘어선 풍경은 비현실적이었으며, 가끔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빙하의 모습은 지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못해 '빙하 위를 걸으며 빙하수 칵테일 위스키를 시음하는 사치'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Glaciar Perito Moreno

**피츠로이의 성지:** ‘트레킹의 수도’ 엘 찰텐(El Chaltén)에 펼쳐진 피츠로이(Fitz Roy) 산군은 압권이었습니다. 아침 해를 받아 금색



Morador Fitz Roy

으로 물든 피츠로이는 왜 이곳이 전 세계 등반가들의 성지인지 말 해주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로고가 바로 이 능선입니다. 설립자 이본 쉬나드가 한국 주둔 시절 암벽등반 장비를 직접 만들며 산악인들의 우상이 되었던 역사적 인연을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깊었습니다.



Golden Fitz Roy

**눈 덮인 고행:** 다음 날 왕복 20km의 플리에게 툼바도(Plieguer Tumbado)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고지대에는 눈이 되어 쌓여 있었고, 미끄러운 경사면을 오르는 것은 힘겨웠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설산의 파노라마는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Iguazu Falls

#### 4. 이구아수 폭포: 신이 실수로 흘린 거대한 눈물

안데스를 떠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접경의 \*이구아수(Iguazu)\*로 향했습니다. 약 2.7km 폭에 270여 개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이곳은 말 그대로 ‘신의 걸작’이었습니다.



Fitz Roy from Plieguer Tumbado

**악마의 목구멍:** 아르헨티나 측 열차를 타고 도착한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 전망대. 발밑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수량과 물안개, 고막을 울리는 굉음은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이구아수 폭포를 본 뒤 “불쌍한 나이아가라(My Poor Niagara)” 라고 했다는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의 짧은 세마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의 지혜:** 최근 강화된 비자 문제로 브라질 측 방문이 우려되었으나, 현지인의 조언으로 슬기롭게 국경 버스 절차를 마친 덕분에 브라질 쪽의 웅장한 전경까지 놓치지 않고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 5. 에필로그: 에비타의 눈물과 남미의 혼

여정의 마지막,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혼 ‘에비타(Evita)’를 만났습니다. 뮤지컬 속 선동적인 이미지와 달리, 레콜레타 묘역에서 서민들의 헌화를 받으며 친정 가족 묘역에 조용히 잠든 그녀는 ‘성녀(Santa Evita)’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20일간의 여정은 단순히 멋진 경치를 보는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함 앞에 인간의 작음을 깨닫고, 낯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동료들과 땀 흘리는 기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 명단 (108명 / 2026-2-25)

|     |     |     |     |     |     |
|-----|-----|-----|-----|-----|-----|
| 강교숙 | 김상만 | 박상원 | 오순문 | 이영범 | 조상근 |
| 강에드 | 김승호 | 박준구 | 오용호 | 이홍대 | 주상선 |
| 강영덕 | 김영덕 | 박희병 | 오인석 | 이위곤 | 주재양 |
| 강동희 | 김영만 | 배상규 | 우규환 | 이전구 | 진봉일 |
| 고애자 | 김우영 | 성기로 | 육재희 | 이종대 | 천병수 |
| 곽선섭 | 김익성 | 손갑수 | 윤선구 | 이종석 | 천종화 |
| 권문웅 | 김정필 | 손경택 | 윤상영 | 이준행 | 최병우 |
| 권정덕 | 김창수 | 손대홍 | 윤재옥 | 이행순 | 최준희 |
| 홍선경 | 김충정 | 남종현 | 윤종숙 | 이흥빈 | 최한용 |
| 권태전 | 김치갑 | 손옥화 | 윤현남 | 임도혁 | 최학주 |
| 금영천 | 김태일 | 송근숙 | 이강홍 | 임호순 | 한민우 |
| 김광수 | 김한종 | 송용길 | 이민제 | 전문준 | 한용오 |
| 김광현 | 김현중 | 송현자 | 이상무 | 정도현 | 한태진 |
| 김동건 | 노승만 | 송학린 | 이상원 | 정수일 | 한용희 |
| 김동경 | 노용면 | 송혜순 | 이승준 | 조달훈 | 허용용 |
| 김문언 | 문 선 | 신두식 | 이 준 | 조승자 | 홍정표 |
| 김병순 | 민준기 | 신진식 | 이대영 | 정준영 | 홍종만 |
|     | 박기환 | 신응남 | 이대영 | 정해민 | 홍예경 |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30명 / \$3000 / 2025-2-25

|     |     |        |
|-----|-----|--------|
| 강에드 | 윤종숙 | 홍예경    |
| 권정덕 | 이강홍 | (2027) |
| 홍선경 | 이상무 | 윤종숙    |
| 김상만 | 이위곤 |        |
| 김문경 | 이종대 |        |
| 김영덕 | 이행순 |        |
| 김정필 | 이흥빈 |        |
| 김충정 | 임호순 |        |
| 박희병 | 윤상영 |        |
| 성기로 | 주상선 |        |
| 손대홍 | 최준희 |        |
| 남종현 | 최한용 |        |
| 신진식 | 문 선 |        |
| 우규환 | 홍종만 |        |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14명 / \$6,300 2026-2-25)

|          |          |
|----------|----------|
| 강에드 300  | 우규환 200  |
| 권정덕 500  | 이강홍 500  |
| 김문경 300  | 이종대 200  |
| 김영덕 1000 | 이행순 300  |
| 김정필 300  | 최준희 300  |
| 성기로 400  | 최한용 500  |
| 신진식 500  | 홍종만 1000 |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화번호:

Email:

주소 (Home):

골든클럽 행사 2026

|     |        |                               |
|-----|--------|-------------------------------|
| 2월  | 12일(목) | Talk show (Hilton Garden Inn) |
| 3월  | 7일 (토) |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
| 4월  | 2일(목)  |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
|     | 23일(목) | 골프대회                          |
| 5월  | 21일(목) |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
|     | 28일(목) | MOMA 방문                       |
| 6월  | 11일(목) |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  |
|     | 25일(목) | 골프대회 Walkill                  |
| 7월  | 23일(목) | 골프대회 Meadows                  |
|     |        |                               |
| 8월  | 20일(목) | 골프대회                          |
| 9월  | 24일(목) | 골프대회                          |
| 10월 | 15일(목) | 미네와스카 단풍관광                    |
|     | 22일(목) |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
| 11월 | 5일(목)  | 골프대회                          |
| 12월 | 5일(토)  | 뉴욕동창회 송년회                     |
|     |        | 골프여행                          |

3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영덕 (공대53) 조상근 (법대69)  
 김치갑 (의대72) 주재양 (공대51)  
 이대영 (문리64) 최준희 (의대58)  
 이준행 (공대48) 추재옥 (의대57)  
 임도혁 (공대59) 한태진 (의대58)  
 전문준 (상대64) 홍선경 (의대58)  
 정준영 (문리67)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